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19장(찬송하는 소리있어) .....
※ 교독문	.....55(시편127편)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16(성자의 귀한 몸) .....
예배기도	..... 1부 원혜경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축복송” .....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 이
* 성령이 이끄시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전도초청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에베소서 6:21-24 .....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438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
봉 헌	..... (5구역) .....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윤승호집사	본 문 / 요한복음17:21	기 도 / 말은이	본 문 / 갈라디아5:22,23	에스겔 강해	에스겔 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b>금요기도회</b>	
WCC란 무엇인가?	축 도 / 최세열목사	“성령의 열매-화평”	주기도문 / 다같이	다음 주부터 모이겠습니다.(11월15일)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김금자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기 도	1부	박세일집사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베드로회
	현금위원	11월 공영순 이영란 김귀례 한은미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12월 김기희 김애자 김근중 이강영		2부	베드로회
	식당봉사	금주 사라회	다음주 바나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허 응 집 사
헌신찬양	금주	5 구 역	다음주	베드로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에베소서 6:21-24**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장점과 자랑거리, 선행, 성공담을,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강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안고 이를 악물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다른 생각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기보다 시기와 질투, 비난과 허물을 찾기에 안간힘을 썼으며 자신들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3,44)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하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시115:15)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권입니다(마 18:18).

축복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입니다.

**1.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평안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빌어야 할 축복은 심령의 평안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축복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죽음의 위협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2. 바울은 에베소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23절).**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23절).  
 평안과 믿음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곧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긍휼히 여겨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를 위한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용기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8:39) 우리는 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24절).**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 되게 합니다(고전15:1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엡2:8).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엡3:7).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서로 축복하십시오.

신앙주제 / 11. 헌 신(2013.11.3)  
**제1과 성전 문지기로 산다는 것(시편84편1-12절)**

**말씀 살피기**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그리워하여 그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속에서 간증 거리가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성전문지기’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시인은 성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1절)
2. 어떤 삶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4,5,12절)
3. 시인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2,10절)

**말 씬**

문지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을 지키며 파수하는 문지기요, 다른 하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며 사모하여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문지기는 성전을 사모하여 거기에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여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전 문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시인은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간절히 구합니다. 참된 헌신자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성전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성전 문지기에게는 삶의 간증 거리가 생겨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간증 거리를 주시니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4).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것은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은 간증거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성전 문지기의 삶입니다.

**셋째, 성전 문지기의 헌신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지기는 헌신의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봉사직입니다. 대가나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헌신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악한 일을 행하며 부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기쁘게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헌신은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족하며,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상급이나 칭찬이 없다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

1.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내왔습니까
2.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3. 성전 문지기로 사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 후 제직회로 모입니다.
2. 다음주일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베드로회가 함께 합니다. 베드로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도행전 전도축제 12주 85일간의 전도여행에 모든 교우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주일 남았습니다. 전도초청예배 당일에 초청하실 분들은 전도사역팀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제5차 작정밤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추수감사주일(11월 17일) 찬양예배는 신도회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각 신도회와 부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금 부산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WCC에 대한 안내와 부산회의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노회소식 : 경기노회 제176회 정기노회 제1차 임시노회가 11월 5일(화) 이천새터교회에서 있습니다.
8. 교우소식 - 김옥길집사님께서 빈센트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정숙자 김귀례 박정일 박지영 이문순 심재룡 이종봉 이춘호 이종열 박현순 안복선 김애경 윤승호 최경선 강동균 김현아 강항구 류종란 김연학 김장숙 김근중 주종임 김춘자 방옥남 김혜경 정선례 김선주 원혜경 선우명환 장영분 무 명
- 감사헌금 : 심복래 최승만 신공님 강진숙 엄동순 김혜경 김선주 원혜경 김지환 박광섭 김동현 최근배 (심방) 박치국 이영란 김미연 이인희 박정미 (일천번제) 김동현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김선주 원혜경 김혜경 방옥남 김근중 주종임 이종봉 이춘호 이윤화 이현화 이종열 박현순 김귀례 김선자 선우명환 장영분 베드로 마리아
- 비전씨앗 : 허유리 허준범 박상귀 공영순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박홍만	3	15,000	25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2	10,000	57 심문자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5	20,000	30 김상예
3	이춘호	황경숙	신공님	3	17,000	200 박경자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6	25,000	10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임애경	4	11,000	30 정선례	10	장영분	박현순	박세일	9	37,000	100
5	이문순	원혜경	이문순	3	15,000	한은미	계				38	194,000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3	14,000	25							

###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 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 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 멀리서 보면 자상한 이웃집 아저씨 같이 털털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정작 가까이서 보면 잔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약간의 차가움마저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상한 배려를 더 훈련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가장 어색해하는 것 중 하나가 축복송을 불러주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위해 부르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앞에 세워 놓고 부를 때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집회시간에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하라는 말도 잘 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도 요즘은 연습한다. 그리고 가끔 성도들에게도 권한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하고 나면 좋다. 결국 우리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비난하기보다 축복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니까.

### 타인을 위한 축복의 배려

어느 수필가의 글에 있는 이야기다. 서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 할 때였다고 한다. 신설동 집안의 복이 계속 자기네를 따라오게 하려고 방마다 창호지를 복복 찢고 청소도 대충 했다. 복이 그 집이 싫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봉천동 집에 도착해서 빈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이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창호지도 멀쩡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두 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준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44 2013.11.3.

### 11월의 행사

1. 제직회 - 11월 3일
2. 해든솔 선교활동 - 11월 9일 오전8시30분.
3. 평신도참여예배 - 11월 10일 / 베드로회
4. 추수감사주일 - 11월 17일
  - \* 이 날은 전도초청예배로 드립니다.
5. 추수감사절찬양예배 - 신도회별 찬양
6. 예, 결산위원회 - 11월26일 / 제직회에서 결정
7. 각부감사 - 11월 30일 오전10시30분부터
  - \*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감사 : 제직회에서 결정.
8. 경기노회 제176회 제1차 임시노회
  - 11월 5일(화) 오후2시 이천새터교회

### WCC란 무엇인가?

#### WCC의 제10차 부산회의의 의미

- \* WCC부산회의
  - 일정 : 2013년 10월 30일- 11월 8일
  - 장소 : 부산 백스코 회의장
- \* WCC에 대한 안내와 오해들에 대한 대답
  - 11월 3일 찬양예배
- \* 경기노회참여일정 - 11월 7-8일
- \* WCC는 전 세계 140개국에 산재한 우수한 정교회와 개신교회 349개 교단과 그 속에 속한 5억 6천만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의 연합기구이며 한국에서는 정통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정교회 대교구가 회원교회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연합기구이다.

**담당특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